

청학서: 선조들이 만난 만주어

연규동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청학서(淸學書)는 청학을 배우고 연구하기 위해 간행된 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청학(淸學)이란 중국 청나라(1616~1912) 시대의 학문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만주어에 관한 학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청학서는 만주어를 학습하기 위해 만든 문헌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 시대에 간행된 청학서를 소개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만주어를 접하고 학습한 역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만주인 접촉의 역사

우리 선조들은 왜 만주어를 배워야 했을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만주어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민족들의 언어 중 하나였으며, 오래전부터 선조들이 만주어를 사용하는 이들과 교류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산둥(山東) 반도 및 만주 동북부 지역은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진 곳이며, 이후 고구려와 부여, 발해의 땅이었던 곳이다. 또한 이 지역은 만주인을 포함한 현대 통구스족의 조상들이 숙신(肅愼), 음루(挹婁), 물길(勿吉), 말갈(靺鞨) 등으로 이름을 바꿈 가며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이 북방 민족들의 언어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 언어들과 접촉하여 왔을 것이다.

고려 때에도 만주인의 조상인 금나라(1115~1234) 및 여진(女眞)과 접촉한 기록이 있으며 여진어를 담당하는 통역관이 있었다. 금나라가 망한 후 여진인들은 백두산과 헤이룽 강[黑龍江] 사이의 넓은 지역에서 무리를 지어 살면서, 북방에 거주하던 선조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고려 말 이성계의 고조부가 전주에 살다가 삼척, 의주(지금의 원산)를 거쳐 원나라에 투항한 후 행정 관리가 되어 여진을 다스렸던 이래로, 조선은 함경도 일대 여진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사경(四境)을 개척(開拓)하사 섬 안해 도죽 니저니”(53장)는 동북면 여진인들이 이성계를 섬기면서 활약을 펼쳤던 것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다. 게다가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국경을 맞대고 있던 여진과의 관계가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

조선 초기에는 많은 여진인들이 한양으로 올라와서 조공하고 명예 관직을 제수받으며 하사품을 받기도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올랑합의 천호(千戶) 도을온(都乙溫)과……올적합의 지휘(指揮) 자용합(者用哈) 등 1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므로, 의복, 갓, 신을 내렸다.”와 같은 기록에 나오는 ‘올랑합, 올적합, 알타리, 야인’ 등이 모두 여진 부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의 방문 기록은 실록 전반부에 1,000번이 넘게 나오는데, 태종 때에 여진 사신을 접대하는 관청인 야인관(野人

館, 후에 북평관(北平館)으로 개칭을 지금의 동대문 근처에 설치한 것도 이 같은 정황을 보여 준다.

여진과의 관계가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여진인들은 생필품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북쪽의 변방 지역을 노략질하기도 하였고, 이후 세력이 커지면서 영토를 자주 침범하여 들어오기도 하였다. 이에 세종 때 여진인들을 토벌한 후,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하류에 각각 사군(四郡)과 육진(六鎭)을 설치하게 된다.

만주인들은 명나라(1368~1644)가 임진왜란에 참전하면서 만주에 대한 방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 1616년 후금을 세우고 나중에 국호를 청(淸)으로 고쳤다. 그 후, 1644년 산하이관(山海關)을 넘어 베이징으로 들어옴으로써 청나라는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조선과 만주인과의 관계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더욱 밀접하게 된다. 오랫동안 명나라를 섬기던 조선은 청나라가 건국되자 처음에는 오랑캐라고 멸시하고 배척하며 외교 관계를 맺지 않으려 했다. 이에 청나라는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1637)의 두 차례에 걸친 침략을 단행하였고, 결국 조선은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이처럼 언어가 다른 집단과 접촉이 빈번해지면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통역이 필수였을 것은 명백하다. 조선 초기 여진과의 관계를 볼 때 여진어는 북방 외교에서 의미 있는 언어였다. 조공을 바치러 오는 이들이나 국경을 침범하는 여진인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를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주어 역시 마찬가지였다. 광해군 때에는 여진어에 능한 역관들을 몰래 보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여진어, 만주어가 어떤 목적으로 교수되었는지 알 수 있다. 중국 대륙의 주인이 청나라로 바뀐 이후 만주어를 할 줄 아는 이들의 수요는 더 늘어났다.

2. 만주어 교육 기관

오늘날과 달리 옛날에는 외국어를 배우고 통역을 양성하는 일을 나라가 직접 담당했는데, 외국어 학습의 목적을 국가 간 외교의 일부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국어 학습과 연구를 역학(譯學)이라고 하였으며, 외국어 관련 업무를 맡은 이를 역관(譯官)이라 하였다. 아울러 특정 언어를 넣어 가리킬 때에 여진어 및 만주어의 역관들은 호역(胡譯)이라 부르다가 나중에는 청역(淸譯)이라고 했다.

조선 시대에 외국어의 번역과 통역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외국어를 교육하기 위해 1393년(태조 2년) 사역원(司譯院)이 설치되었다. 1682년(숙종 8년)에는 사역원 소속으로 우어청(偶語廳)이 설치되기도 하였는데, 우어청 내에서는 우리나라 말을 금하고 오로지 해당 외국어만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여진어 및 만주어 역시 사역원 또는 우어청에서 교육하였다. 1426년(세종 8년) 함길도 주민 중 여진어에 능통한 사람 세 명을 골라 사역원에 배속시킨 것이 여진학(女真學)의 시작이었다. 이어 1438년(세종 20년)에는 함경도 북청에도 여진어 교육 기관을 설치하였으며, 《경국대전》에는 사역원 및 북청 외에도 의주, 창성 등 여섯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지방에서 여진어 교육을 담당한 이들은 역관이면서 동시에 군관을 겸한 사람이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여진어 및 만주어 교육의 목적이 외교적, 군사적이었음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3. 만주어 학습서

외국어를 가르칠 때에는 당연히 교재가 필요하다. 실록에는 조선의 사신이 청나라 장수 용골대(龍骨大)에게 역관 양성을 위해 책을 청하는 기록도 볼 수 있다. 조선에서 간행된 만주어 학습서, 즉 청학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진학 역관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천자(千字)》, 《천병서(天兵書)》, 《소아론(小兒論)》, 《삼세아(三歲兒)》, 《자시위(自侍衛)》, 《팔세아(八歲兒)》, 《거화(去化)》, 《칠세아(七歲兒)》, 《구난(仇難)》, 《십이제국(十二諸國)》, 《귀수(貴愁)》, 《오자(吳子)》, 《손자(孫子)》, 《태공(太公)》, 《상서(尙書)》 등 열다섯 종류의 교재를 공부하여야 했다. 이 책들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만주어로 된 최초의 청학서는 《구난》, 《거화》, 《상서》, 《팔세아》, 《소아론》 등이다. 이 책들은 앞서 사용해 오던 여진어 교재 가운데 일부를 골라 만주어로 옮겨 1639년(인조 17년)에 간행한 것인데, 이 책들 역시 현재 전하지 않는다.

이후 이 교재들도 현실어와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고 어휘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1684년(숙종 10년)에는 《삼역총해(三譯總解)》, 《신번노걸대(新翻老乞大)》, 《팔세아》, 《소아론》이 필사본으로 편찬되어 과거에 사용되다가, 1703년(숙종 29년)에 목판본으로 완성되었다. 이때 《신번노걸대》는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 책들 또한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1691년(숙종 17년)에 간행된 만주어 사전 《동문유집(同文類集)》 역시 현재 전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청학서들은 모두 영조·정조 연간에 개편

된 중간본이다. 사역원 청학서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의사소통을 배우기 위한 회화 교재와 글을 배우기 위한 독본 교재 및 단어를 찾기 위한 사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필요한 교재와 비교하여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문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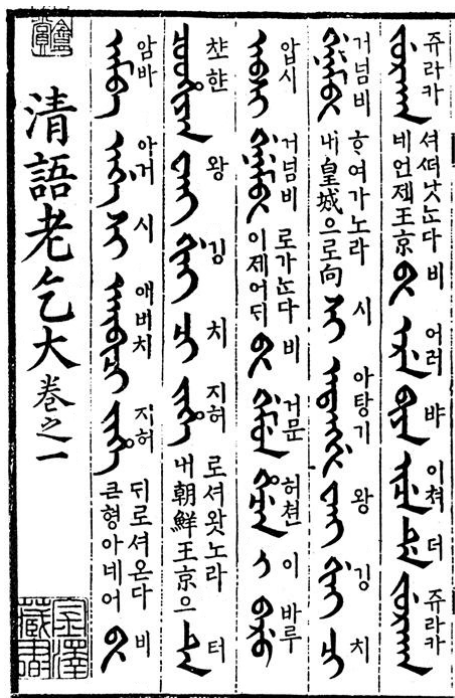
3.1. 《청어노걸대》

《청어노걸대》는 모두 8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주어 회화 교재이다. 현존본은 1765년(영조 41년) 지금의 평양 지역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고려 시대부터 사용되던 한어(漢語) 학습 교재인 《노걸대》를 만주어로 번역한 책이다.

언어와 상관없이 현존하는 《노걸대》 관련 문헌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 《노걸대》 문헌들은 조선(또는 고려) 상인이 사촌 형제 두 명과 함께 모시, 인삼 등 우리나라의 특산물을 말에 싣고 중국 연경에 가서 팔고 다시 물건을 사서 돌아올 때까지 만나는 중국인들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길에서 만나 통성명하는 장면, 민박을 구하는 장면, 숙박비나 물건값을 깎는 장면, 말 먹이, 방값 등 당시의 물가에 관련된 장면, 시장에서 거래하는 장면, 특산물인 인삼을 소개하는 장면, 중국 화폐를 사용하는 장면, 의원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 등 매우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양(羊)의 종류와 이름, 비단의 종류, 단위를 재는 방법, 활과 화살 만드는 법, 연회 음식의 종류와 명칭, 복식, 육감 등 당시의 생활상이나 습속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청어노걸대》는 사역원에서 간행된 외국어 회화 학습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데, 만주 문자와 만주어 음을 한글로 전사한 후,

[그림 1] 청어노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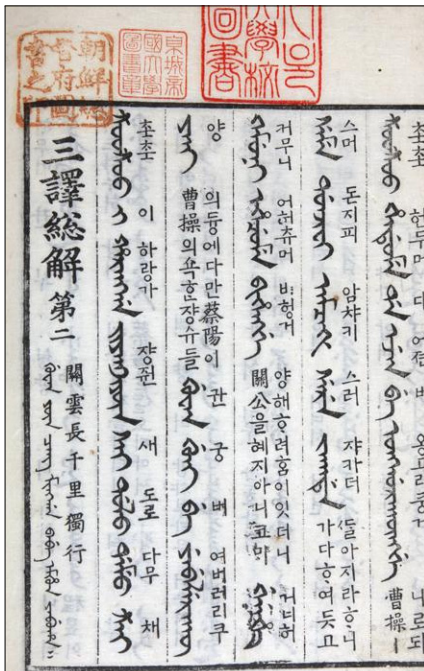
문장이 끝나면 우리말로 해석해 놓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원래 병자호란 후에 청나라에서 돌아온 조선 사람이 습득한 만주어로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른바 콩글리시라고 부르는 것 같은 만주어 표현들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한 만주어를 반영하려는 의도도 있어서 일찍부터 수정 작업이 추진되었다. 이 책의 수정은 만주 지역과 교역의 요지였던 함경도의 회령에서 만난 만주 서사관書寫官, 비터시[筆帖式]라고 부른대에게서 만주어의 음과 철자를 교열 받아 이루어졌다.

3.2. 《삼역총해》

《삼역총해》는 모두 10권 10책으로 된 만주어 독본 교재이다. 현재 전하는 것은 1774년(영조 50년)에 편찬된 중간본이다. ‘삼역총해’라는 이름은 《삼국지》를 번역하였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역총해》는 1650년 청나라의 키충거[祁充格] 등이 옮긴 만주어 《삼국지》 가운데에서 10회분을 가려 뽑아 만주어 음을 한글로 전사하고, 우리말 번역을 붙인 체제로 되어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삼국지》의 전체 내용 중에서 〈적벽대전〉 부분이 주로 번역되었다는 점으로(권 3부터 권 9까지), 당시 이 부분에 특히 흥미를 가졌던 것으로

[그림 2] 삼역총해



보인다. 각 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권 1: 봉의정에서 여포가 초선을 희롱하다
- 권 2: 관우가 천 리 길을 홀로 가다
- 권 3: 제갈량이 지모로 손권을 자극하다
- 권 4: 제갈량이 계책으로 주유를 굴복시키다
- 권 5: 황개가 조조를 깨뜨릴 계책을 바치다
- 권 6: 감택이 거짓 항복서를 몰래 바치다
- 권 7: 방통이 연환계를 바치다
- 권 8: 조조가 창을 가로 들고 시를 읊다
- 권 9: 관우가 의리 때문에 조조를 놓아주다
- 권 10: 금강묘계로 조자룡이 주군을 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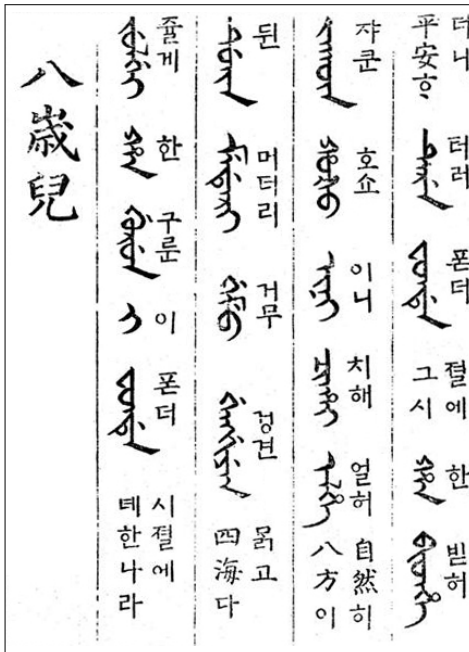
3.3. 《팔세아》

현재 전해지는 《팔세아》는 1777년(정조 1년)에 편찬된 만주어 독본 교재로서, 모두 열두 장으로 이루어진 간략한 책이므로 수록된 문장이나 낱말의 수가 적어 초보자용 만주어 학습서로 이용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된 내용은 중국 한나라 때 여덟 살 난 아이가 황제의 질문에 재치 있게 대답하여 벼슬을 받았다는 옛이야기이다.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황제: 하늘에 귀 있느냐?(han geli fonjime hedume/abka de šan bio 皇帝 쏘 무려 니르샤되, 하늘에 귀 있느냐)
- 팔세아: 천하에 학이라는 새가 귀한 소리로 우는데, 하늘이 귀한

[그림 3] 팔세아



소리라 하며 즐겨 들으시니, 그때에 하늘에 귀가 없으면 어느 귀로
 들겠습니까. (jakūn se jui jabume/ abka fejile de/ bulehen gasha
 wesihun jilgan i guwembi/ dergi abka wesihun jilgan seme
 urgunjeme donjihabi/ tere fonde/ abka šan akū oci/ ai šan i
 donjimbi 八歲兒 | 덕담호되, 天下에 鶴 증싱이 귀흔 소리로 우리
 늘 上天이 귀흔 소리라 하여 즐겨 드르시니 그 시절에 하늘에 귀
 업스면 어니 귀로 드르료)

3.4. 《소아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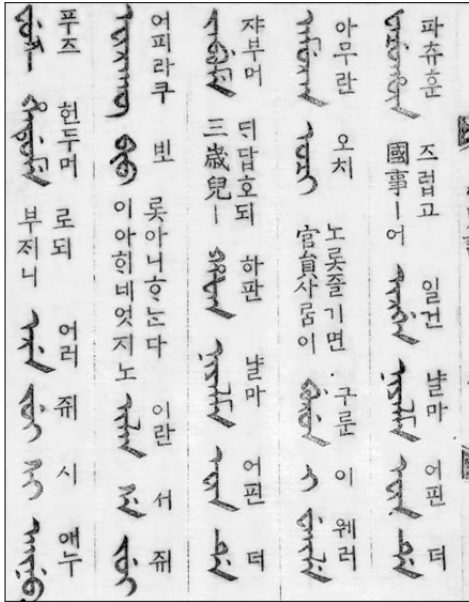
현재 전해지는 《소아론》은 1777년(정조 1년)에 편찬된 만주어 독본 교재로, 모두 열다섯 장으로 이루어진 간략한 책이다. 이 책의 간행 배경이나 체제는 전적으로 《팔세아》와 동일하다.

이 책의 내용은 중국 한나라 때 부자(夫子), 즉 공자가 세 살 난 아이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현명한 대답을 얻었다는 옛이야기이다.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자: 애야, 너 어찌 놀이 하지 않느냐?(fudzy hendume/ ere jui si ainu efirakū bio 부직 니로되 이 아히 네 엇지 노릇 아니 흐느다)
- 삼세아: 관리들이 놀이를 즐기면, 나라일이 어지럽고, 백성들이 놀이를 즐기면 농사일을 누가 거두겠습니까.(ilan se jui jabume/ hafan niyalma efin de amuran oci/ gurun i weile facuhūn/ irgen niyalma efin de amuran oci/ usin nimalan be we bargiyambi 三歲兒 | 딴답호되, 官員 사름이 노릇 즐기면 國事 | 어즈럽고, 百姓 사름이 노릇 즐기면 農桑을 뉘 거두료)

《팔세아》 및 《소아론》과 같이 지혜로운 아이가 등장하여 공자와 대화 나누는 이야기를 ‘공부자동자문답(孔夫子童子問答)’ 또는 ‘동자문답(童子問答)’이라고 한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설화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나라의 민간 사회에 널리 유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일곱 살 난 아이와의 대화를 담은 국문 고대 소설이 여러 편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여진학 때부터 같은 이름의 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책들의 내용은 함께 당시 만주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림 4] 소아론



3.5. 《동문유해》

《동문유해(同文類解)》는 1748년(영조 24년)에 편찬된 2권 2책의 만주어 사전으로, 현존하는 조선 청학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당시 중국에서 나온 여러 만주어 사전과 어휘집 등을 참고하여 6년여에 걸쳐 수정하여 간행되었다. 책의 뒷부분에는 조사, 접속사 등에 관한 만주어 문법이 요약되어 실려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만주어 어휘는 모두 4,800여 개로, 의미에 따라 55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 의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상관: 천문(天文), 시령(時令), 지리(地理), 인륜(人倫), 인품(人品),

로 되어 있다. 우리말이 중국어 표제어와 동일한 경우에는 중국어 한자의 음절 수에 해당하는 만큼 짧은 선을 그어 표시하기도 하였다.

天道	하늘	○압카
天文		○압개 슈
月兒	들	○바
星	별	○우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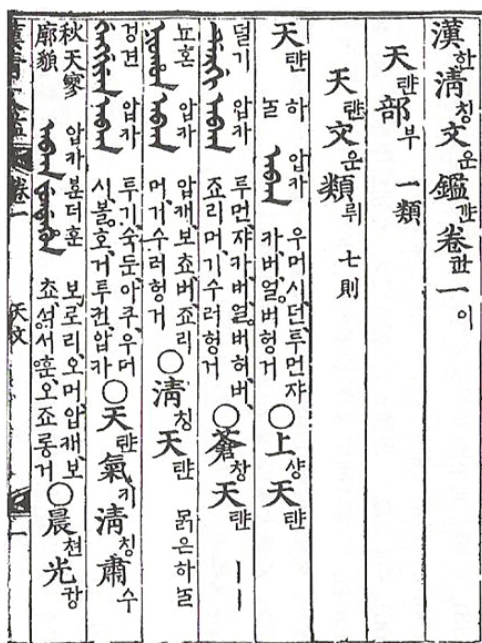
3.6. 《한청문감》

《한청문감(漢淸文鑑)》은 1779년(정조 3년)경 간행된 만주어 겸 한어 사전이며, 1771년(영조 47년) 청나라에서 간행된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을 대본으로 하여 편찬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표제어 항목의 총수는 1만 2,840여 개로, 모두 15권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사전이다.

어휘들은 의미에 따라 천부(天部), 시령부(時令部), 지부(地部) 등 36개의 부(部)와 천문류(天文類), 제왕류(帝王類), 정사류(政事類) 등 292개의 유(類)로 분류되어 있다. 각 항목의 기술은 다음에 보이는 예와 같이 4단으로 되어 있다.

天탄	하늘	압카 	우머시, 던, 투먼, 자카, 버, 얼. 버헝거
人신	사람	날마 	압개, 반지부하, 투먼, 얼경거, 이, 돌기, 우머시, 수령거

[그림 6] 한청문감



제1단은 한어 표제어이며(天, 人 등), 한어의 각 글자 오른쪽 아래에는 한글로 음을 달고 있다(탄, 신 등). 제2단은 우리말 풀이(하늘, 사람 등), 제3단은 표제어에 대한 만주어이며(ᡩᠠᠨ, ᡤᡠᡳᡳᡳ 등), 그 옆에는 만주어 음을 한글로 전사하여 놓았다(압카, 날마). 제4단은 만주어로 된 뜻풀이이다(‘우머시, 던, 투먼, 자카, 버, 얼, 버헝거’, ‘압개, 반지부하, 투먼, 얼경거, 이, 돌기, 우머시, 수령거’ 등).

위에 제시한 두 단어의 만주어 뜻풀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각각 다 음과 같다.

- 하늘: 아주 높은 만물을 덮은 것(abka: umesi den tumen jaka be elbehengge)
- 사람: 하늘이 낸 만 (가지) 생명 중 아주 총명한 것(niyalma: abkai banjibuha tumen ergengge i dorgi umesi surengge)

3.7. 《방언집석》

《방언집석(方言集釋)》은 1778년(정조 2년)에 간행한 한어, 한국어,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 등 5개 언어 사전이다.

이 책에는 모두 5,000여 개의 어휘가 87개의 의미 항목으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다. 각 항목은 한어와 우리말 풀이를 공동의 표제어로 삼아 그 밑에 한어의 관화음(官話音) 및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의 순으로 대역어를 제시하고 있다.

[天 하늘 漢天텡又天텡道단 清압카 蒙텡거리 倭소라
 [姨母 어의계집동생] 漢姨이母무 清더허머 蒙어거, 나가쑤, 어거
 치 倭오바
 [飯店 밥포는다픈 누딘] 漢飯반店던 清부대, 단 蒙부다가, 푸스
 倭메시, 우리노, 도고

다만, 《방언집석》은 미처 간행되지 못하고 4권 1책의 필사본으로만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사역원 청학서들과는 구별된다. 이 책의 간행은 정조의 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책과 같은 다언어 사전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점은 당시의 문화적 역량은 물론 실용적 학문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方言集釋卷二

保晚齋秘笈三十四

嫁娶類

親事

101-5-140
110-10-1

懷親친후스(情)나만이바(家)우
 록바(立)후거력(送)엔벤스(送)루고도

做親

성혼 漢倣수親친 又結件親친
후다 高卡만 자밤시 家우룩바

나스마시엔

說親

의 혼(雲) 說(說) 親(親) 心(心) 靑(靑) 螢(螢) 비(比) 家(家) 堦(階)
하(下) 다(多) 려(려) 위(위) 陰(陰) 연(連) 망(望) 고(高) 우(우) 마(馬) 시(時) 하(下)

庚帖

○한글이 북다리

合庚

궁합의 초다

漢合하庚경公공
버런아차봄비

送禮

송하(宋河) 송하(宋河) 又丁亥之 당차(堂差) 당차(堂差) 又丁亥之 당차(堂差) 당차(堂差) 又丁亥之

納弊ナヒ

國納牛帶山
山日川家山

신자반
릴가위반

婁娘子

엇안
다히
기

아보위 傳즈마오 옛터 마시터

托女婿

사회(娼會) 招娼(招娼) 女(女) 子(子) 婦(婦) 人(人) 請(請) 立(立) 不(不) 幸(幸) 甚(甚) 矣(矣)
엇다(엇다) 물(물) 건(건) 아(아) 보(보) 무(무) 倭(倭) 母(母) 고(고) 오(오) 옛(옛) 때(때) 마(마) 시(시) 다(다)

出

卷之五

하오 명(명)우려

合

承邑 하邑

부비(家) 벨러클루위

害柑

혼인

통통비(通通比) 한추옥로주(汗秋玉露酒)

黃

花女

호외위인倭儒우세루맛센요우부

紅花

女
에
건
개
하
여
하
家
두

4. 만주어 역관 양성 과정

만주어 역관을 양성하는 과정은 사역원에서 교수하였던 다른 언어들과 동일하다. 만주어를 포함한 외국어 학습 및 시험 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다.

외국어의 학습은 수강(受講), 사자(寫字), 배강(背講)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먼저 스승의 강의를 들은 다음, 글을 베껴 쓰고 책을 보지 않고 외우는 것이다.

사역원 시험 제도는 원시(院試), 고강시(考講試), 취재시(取才試), 역과시(譯科試) 등 네 단계를 거쳤다. 원시와 고강시는 회화를 중심으로 한 시험으로 지금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여기에 합격해야만 취재시와 역과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취재시에 합격하면 관리에 임명되고 중국 사절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며, 역관이 되기 위해서는 역과시에 합격해야만 했다. 역과 시험에는 1차 시험인 초시(初試)와 2차 시험인 복시(覆試)가 있었다.

5. 만주어를 배운 사람들

초기에 여진어 및 만주어에 능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진과 접경 지역에 살던 이들로, 여진인 또는 만주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의 포로가 되어 만주어를 익힌 조선인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조선 측 역관은 물론 청나라 측 통역으로도 활동하였다. 병자호란 후 8년간 청나라 심양(瀋陽)에서 볼모로 지냈던 소현 세자 일행의 일을 적은 《심양일기》에는 청의 위세

를 배경 삼아 조선에 폐해를 끼친 청나라 측 통역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도 한다.

사역원이 설치된 이후 외국어를 학습하고 역관의 역할을 담당한 이들은 주로 중인이었다. 나중에는 여러 가지 특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조선 초기 사역원 학생들은 여러 가지 좋은 대우를 받았다. 또한 역관이 되면 중국 사절단에 통사(通事)로서 합류하여 이를 계기로 사신으로 가는 왕실의 사람이나 대신들과 가까워질 기회가 많았으며, 또한 사절단이 비용 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인삼 등 당시 조선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외국의 물품을 사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역관들은 실용 회화에만 능할 뿐 경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문학적 소양도 없었기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반면, 문신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어 능력을 가지는 일을 잡사(雜事) 또는 잡예(雜藝)라고 치부하며 천시하였다. 이는 만주어뿐만 아니라 한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관료로서 출세하는 데에 언어 능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6. 만주어에 대한 인식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 패배한 이후에도, 조선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청나라를 받들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부터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 만주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변하지 않았으며, 조선 지식인들에게 만주어는 ‘오랑캐’의 말에 불과하였다. 청나라를 업신여긴다는 지적을 받고 나서 여진학이라는 이름을 청학으로 바꾸었으며, 한어-몽골어-일본어-만주어(여진어)로 되어 있던 사역원

의 언어 순서를 1765년(영조 41년)에야 바꾸어 만주어를 몽골어 앞으로 옮긴 사실을 통해서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있다. 청나라 사전인 《어제증청문감》에서는 각국의 책, 언어, 사람을 나타내는 어휘의 배열 순서가 ‘만주-몽골-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저본으로 편찬된 조선의 《한청문감》에서는 ‘한-만주-몽골’의 순서로 바꿔 놓았다. 맨 뒤에 놓였던 한(漢)이 맨 앞으로 온 것이다.

《어제증청문감》의 배열 순서

manju bithe(滿洲書), monggo bithe(蒙古書), nikan bithe(漢書)

manjurambi(說淸話), monggorombi(說蒙古話), nikarambi(說漢語)

manju(滿洲), jušen(滿洲臣僕), monggo(蒙古), solho(高麗人), nikan(漢人)

《한청문감》의 배열 순서

漢書(nikan bithe), 滿洲書(manju bithe), 蒙古書(monggo bithe)
說漢語(nikarambi), 說淸話(manjurambi), 說蒙古話(monggorombi)
漢人(nikan), 高麗人(solho), 滿洲(manju), 滿洲臣僕(jušen), 蒙古(monggo)

게다가 《어제증청문감》은 만주어가 표제어인 사전인데, 《한청문감》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한어가 중심이 되는 사전으로 구성을 바꾸었다. 만주어를 배우기 위해 사전을 편찬하기는 했지만, 청

나라를 앞세우지 않으려는 조선 지식인들의 의식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조선 지식인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즉, 조선 지식인들이 청나라의 학술 수준과 규모에 관심을 가지면서, 만주어를 새롭게 인식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회화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청대의 문화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만주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단편적이거나 만주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를 테면, 이익이나 유득공, 정약용 등은 청나라의 군사 제도나 지명을 만주어를 이용하여 풀이하였고, 박제가는 그의 저서 《북학의》에서 만주어를 비롯하여 인접 여러 국가의 언어를 사대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7. 마무리

지금까지 조선 시대에 간행된 청학서를 중심으로, 우리 선조들이 만주어와 접촉하고 만주어를 학습해 온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조선 시대 청학서는 국어사 자료로서는 독특하게 국어 연구라는 관점과 만주어 연구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는 문헌이다. 또한 선조들이 어떤 방식으로 외국어를 학습하였는지 보여 준다는 점에서 외국어 교육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으며, 청학서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선인들의 삶을 엿볼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강신항(2000), 《한국의 역학》, 서울대 출판부.
- 김남윤(2007), 병자호란 직후(1637~1644) 조청 관계에서 '청역'의 존재, 《한국문화》 4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동북아역사재단(2013), 《만주이야기》, 동북아역사재단.
- 박정민(2014),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우성(2007), 조선후기 지식인의 한어 인식과 만주어, 《조선시대사학보》 43, 조선시대사학회.
- 성백인(1999) 청조의 청문감 편찬, 《새국어생활》 9-1, 국립국어원.
- 성백인(1999), 《만주어와 알타이어학 연구》, 태학사.
- 이영옥(2008), 만주족의 그늘-만주 구륵의 언어정책 1599~1796, 《중국학보》 57, 한국중국학회.
- 정재영 외(2000), 정조대의 한글 문헌, 《문헌과해석》, 문헌과해석사.